

| 박시장-지역 국회의원 불협화음·고발사태 왜? |

# 당적 다르고 상호불신 증폭

박광태 광주시장과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불협화음은 무엇보다도 상호 불신에서 촉발됐다. 지적이다.

우선 당적이 다르다는 배경은 광주지역 의원들과 박광태 시장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상호 보완적 관계보다는 미래의 경쟁 상대로 인식됐다는 것이다.

또한 3선 의원 출신의 박광태 시장과 초선이 대부분인 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성장과정이 다르다는 점은 신뢰 관계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대 국회 출범 초반만 해도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의원들의 사이는 그런대로 원만하게 유지됐다는 평가다. 박 시장의 친화력과 지역 의원들의 의욕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광주지역 의원들은 박 시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시정을 운영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반면, 박 시장은 지역 의원들이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현

## 문화도시 사업관련 문광부와 마찰이 최근 현안마다 티격태격...신뢰여건 조성 시급

안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이 생겼다. 이 같은 상호 불신은 결국 지역 현안 문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문제와 관련 광주시와 문광부의 충돌은 박 시장과 지역 의원들과의 불편한 관계로까지 번졌다. 특히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의원들의 균열은 박 시장의 모 시사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촉발됐다는 평가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잘 지켜 못하고 있어 내가 다시 인식시켜 줘야”라는 취지의 박 시장 발언이 광주지역 의원들을 자극시킨 것이다.

당시 ‘호남소외론’으로 악화된 지역 민심에 고심하던 광주지역 의원들은 발끈했고 지병문 의원은 박 시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양형일 의원과 박 시

장은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박 시장과 광주지역 의원들은 이후 대화 채널도 확보하지 않고 각종 지역 현안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가 하면 지역 행사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국비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광주지역 의원들은 광주시가 사업 설명도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난하는가 하면 광주시는 오히려 지역 의원들이 예산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며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고발 사태의 원인이 된 R&D(연구·개발) 특구 문제와 노벨 평화상 예산 문제 등도 상호 불

신에 의한 대화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는 평가다.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고발 사태는 광주 사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여당 의원으로 걸 맞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박 시장도 보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원로 그룹이 부재하는 등 지역 사회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소문날까 부끄럽다”며 “광주지역 의원들과 박광태 시장은 감정 싸움을 벌이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코드인사는 당연한 것”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 7·3 개각 시비에 반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청와대브리핑에 ‘호흡 맞는 인사 기용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란 제목의 글을 싣고 7·3 개각과 관련, 언론이 제기한 이른바 ‘코드인사’ 주장과 전문성 시비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박 수석은 “소모적 코드인사 비난 국가적 에너지 낭비”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에서 “이번에도 주요 언론의 접근법은 똑같았다. 코드인사라는 독 방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쳤다”며 “대통령 인사를 때마침 제기되는 코드인사 주장을 언론의 ‘의도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우선 일부 언론이 사용하는 코드인사라는 것이 결국 “대통령과 정치적인 이념과 정책성향을 같이 하

는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는 점을 들었다. “나라 운영을 맡은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드인사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는 오히려 “만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코드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 대통령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면서 “미국으로 치면 마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 장관을 써야 맞고, 반대

로 공화당 출신은 민주당 성향 장관을 발탁해야 맞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은 나아가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성향이 같은 인사가 요직에 중용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코드인사를 비난하는 한국 언론이나 민간기업도 코드인사의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신문사의 요직인 편집국장이나 방송사의 핵심인 보도본부장에 코드가 안 맞는 인사를 기용하는 언론사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7·3 개각에서 경제,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청와대 권유로 정책실장과 김병준 전 정책실장을 “코드와 전문성을 아울러 갖춘 분들”이라며 “내각의 70%가 청와대와 여당 출신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역지추향’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대적 조직개편 1등 광주 건설”

“국고보조금 차등 의무화”

민주당 이낙연 의원 개정안

### 박광태 광주시장 시정 브리핑

광주시는 연말까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 광주 1등 시민’이라는 민선 4기 시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첨단산업을 꽃 피우고 문화수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번영된 광주의 신화를 창조하자는 의미에서 시정 목표를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 광주 1등 시민’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이같은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력있는 생산도시 건설 ▲매력있는 문화도시 창출 ▲맑고 푸른 생태도시 조성 ▲함께하는 사회복지 실현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시정 운영방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민선 4기의 새로운 과업에 맞게 조직을 개편키로 하고 우선 13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통상국의 고용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정책의 문화산업기능을 보강해 문화수도를 이끌어갈 문화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영상산업, 게임산업 등 문화 콘텐츠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국제교류 기능도 강화해 국제행사의 유치와 지원·국제교류협력 등을 총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고용·문화·국제 기능

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이달 말까지 단행하고 연말까지 전체 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대적인 재정비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월 경우 이번 조직개편에서 빠진 사회복지·관광체육·건축주택 분야 등 조직 전반에 걸쳐 기능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며, 인력은 정원 범위 안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르면 다음주께 공석인 공무원교육원장 자리를 채우고 일부 부구청장을 교체하는 등 소폭의 국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광주시는 또 5개 자치구와의 인사교류를 정리하기로 하고 ▲서기관급 ▲사무관급 ▲기술직 등 직급·직렬별 인사교류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법률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20.6%)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경기도(70.6%)의 국가보조금 보조율은 같은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남구의회는 5일 임시회를 열고 임기 2년의 의장단을 선출하는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여성인 유정심 의원의 의장에 선출됐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남구의회 의장 유정심씨  
여주시의회 의장 김정민씨  
무안군의회 의장 김천성씨  
고흥군의회 의장 송경석씨  
함평군의회 의장 정현철씨  
진도군의회 의장 김승이씨

광주시 남구의회는 5일 오전 제125회 임시회를 열고 제 5대 전반기 의장에 민주당 소속의 유정심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소속의 조기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유 의장은 남구 다선 거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으로서 광주·전남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서구의

회 나성숙 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의장이 됐다.

여주시의회도 이날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 김정민 의원을 의장, 같은 당 박순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서 김 의원은 3차 결선 투표에서 14표를 얻어 박정채

의원을 2표차로 따돌리고 새 의장이 됐다.

또 ▲무안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의장에 민주당의 김천성 의원, 부의장에 열린우리당 정길수 의원을 ▲고흥군의회는 의장에 송경석 의원, 부의장에 이재후 의원을 ▲함평군의회는 의장에 정현철 의원, 부의장에 이원형 의원을 ▲진도군의회는 의장에 김승이 의원, 부의장에 주만종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상당수의 기초의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기만 사용하는 태양초 고추건조기**

20년 경험과 뛰어난 기술로 탄생한 최고의 유일건조기

유일건조기 4가지

1. 국내 최대 규모로 개발된 건조기

2. 40~50년 된 전통 건조기

3. 내구성이 뛰어난 건조기

4. 성능이 뛰어난 건조기

건조기 구매를 망설임 없이 하십시오!

유일건조기 4가지는 건조기 분야의 최고입니다!

전국대리점모집 : 출시 기념 특가 판매

**주유밀**

전화: 061-382-3008    팩스: 061-382-4008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 없습니다.**

**삼아상권**

062) 363-4800

수집농기계, 고성농기계, 이종기, 영농기, 수확농기계, 비료살포기, 수확농기계, 소형엔진, 토스